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미 경

2020년 2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미 경

2020년 2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미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김미경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2월

<국문초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김 미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문제와 가설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가?

가설 1. 일반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

용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3-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 수용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S, K, H, M), 부산(B, S), 대전(D, B), 광주(J, D), 제주(J, K) 지역에 소재하는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총 41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변인인 성별과 전공계열, 대학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의 수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모두에서 높았으며, 전공계열의 경우엔 이과 학생을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았으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은 문과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았다. 대학 형태에 따른 차이는 2년제 학생들의 수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모두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학생들의 일반적인 변인도 함께 고려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짐작케 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을 낮추며,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케 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지도나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으려면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자기수용 패턴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안에는 성별과 전공계열의 일반요인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v
표목차	v
그림목차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모형	5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7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개념	7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9
2. 진로결정 수준	10
3. 자기수용	11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	13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측정도구	15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15
나. 진로결정 수준	16
다. 자기수용	17
3. 자료분석	17

IV. 연구결과 및 해석	19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변인	19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20
가. 일반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20
나.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21
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23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25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26
가. 측정 모형의 분석	26
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모형비교	26
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	27
라. 매개효과 검증	28
V. 논의 및 제언	30
참고문헌	34
Abstract	40
부록(설문지)	44

표 목 차

표Ⅲ-1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	16
표Ⅳ-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19
표Ⅳ-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련 특징	20
표Ⅳ-3 일반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21
표Ⅳ-4 자기수용 관련 특징	21
표Ⅳ-5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22
표Ⅳ-6 진로결정 수준의 관련 특징	23
표Ⅳ-7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24
표Ⅳ-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25
표Ⅳ-9 자기수용을 매개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측정모형의 요인값...26	
표Ⅳ-10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	27
표Ⅳ-11 모형비교를 위한 X^2 차이검증 결과	27
표Ⅳ-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	28
표Ⅳ-13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표	29

그림 목 차

그림 I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
그림 IV-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 계수	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해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동시에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발달시기보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고 볼 수 있다(박은선, 2008).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은 성인기 삶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개인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진경, 2017). 실제로 대학생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와 직업선택을 꼽았다(김민정, 김봉환, 20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진로 미결정상태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시키고(박선희, 박현주, 2009), 진로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우울감은 자살을 초래했다는 보고들을 종종 볼 수 있다(강종효, 2012).

하지만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의 60.0%와 전문대학생의 59.7%는 여전히 ‘졸업 후의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의 22%와 전문대학생의 15.1%의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계획에 대한 물음에 ‘아직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다(교육부, 2017). 이러한 사실은 대학생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시기이고, 학생들이 진로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Niles & Harris-Bowlsbey, 2009)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현상임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특히 우리 문화권 안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대학생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 개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독립성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격려만을 제공해야 한다(Aquiline, 2006). 그러나 유교사상

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 대신 부모-자녀 간의 동일체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낸다(최세현, 2019). 이와 관련하여 Richard(2013)는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부모가 통제를 줄여가면서 한 발짝 뒤에서 자녀의 성장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의 삶의 태도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며, 앞으로의 교육적·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Richard, 2016)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로 진로확신이 부족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 흥미와 적성을 무시한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취업 전 지연행동을 보인다(고미나, 2012; 김세록, 2019). 대학생들의 이러한 취업전 지연행동은 사회·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데, 진로결정의 수준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분화(하상희, 2012), 자기효능감(구본용, 유제민, 2010), 자아존중감(김나래, 이기학, 2012; 김희수, 2005), 자아탄력성(임주영, 윤경자, 2013) 등이 확인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이현숙, 조한익, 2004), 부모의 긍정적 관여(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지지(신종임, 2010),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 등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은 보고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들은 유기불안, 내재화된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을 비난하는 패턴을 갖게 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의존성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다(Blatt,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정적으로 경험한 자녀일수록 부정적인 자기수용을 취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권오연(2018)은 부모의 심

리적 통제는 자기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자기수용 요인이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기수용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기 수용이란 개인적 및 사회적 경험들을 지각하는 능력(Rogers, 1942)으로 성숙하게 자기실현을 해가도록 돕는 요인(Ryff, 1989)이므로 진로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추측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속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자기수용은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확장시킬 것이며,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일반변인에 따라 일부 변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지를 검증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연구문제 1.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가?

가설 1. 일반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3-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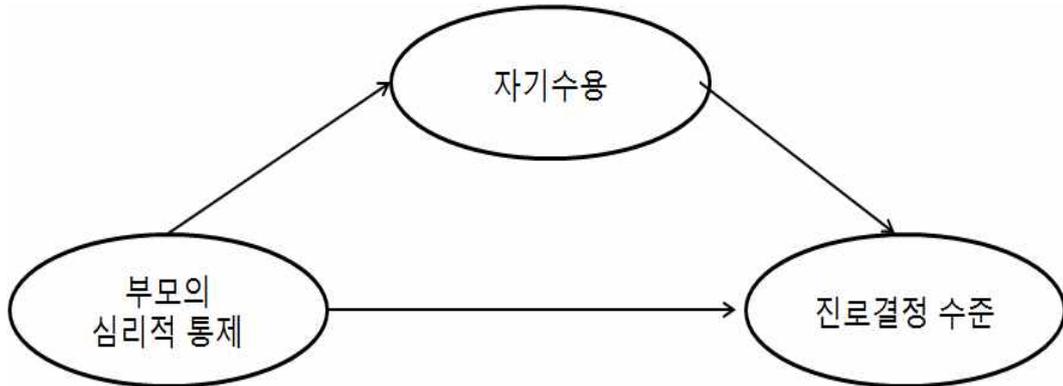


그림 1-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 자기수용에 대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Barber(1996)의 견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사고와 감정, 자기표현,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심리적 자율성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유발, 애청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척도로 수치화되어 측정될 것이다.

2) 진로결정 수준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수준이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김봉환, 1997)으로 정의한다. 이는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결정의 특성,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결정의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량화 되어 나타날 것이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정도는 척도를 통해 수치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지, 유능하고 바르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Ellis와 HarPer(1997)의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개념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를 심리·정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자녀에게 실망을 표현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관계방식을 통하여 자녀를 고립시키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양육방식을 말한다(Becker, 1964; Schaefer, 1965). 이는 부정적이지만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관계나 애정을 기반으로 자녀가 부모의 관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양육태도이다. 부모는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Barber, 1996). 즉,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비 반응적이고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조건적인 관심을 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밀착하여 자녀의 비 자율성 및 의존성을 조장하게 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함으로 인해 간섭적인 행동과 과보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Hauser et al., 198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 사회적 경계를 침해하고 자녀가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와 관련하여 Barber(1996)는 행동적 통제를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한 반면, 심리적 통제를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비난하며, 지나치게

소유욕을 드러냄으로써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rber와 Harmon(2002)은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녀의 죄책감이나 불안 유발, 애정 철회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 행동을 조정하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관계 또는 자녀를 조종하기 위해 양육전략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자녀가 자아를 발견하는 것과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방해하는 유형이다. 셋째, 자녀를 향한 과도한 성취요구나 기대, 거부, 무시, 불일정한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유형이다.

한편,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는 심리적 통제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녀에게 과한 성취를 요구하고 자녀가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행하는 심리적 통제이다. 이를 경험한 자녀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07).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이에 불안을 느낌으로 인해 행하게 되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녀로부터의 분리불안을 갖는 부모를 경험한 자녀는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Blatt, 2004), 의존적 성향을 취하게 된다(Wood,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입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Barber(1996)의 견해에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비난들이나 부정적인 표현들, 과한 소유욕 등을 통해서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자기표현 제한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며, 감정 불인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비난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점을 강조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죄책감 유발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애정철회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녀에게 했던 애정표현을 멈추는 것이며, 불안정한 감정기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일관되지 못한 방법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과보호하는 부모,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부모들일수록 자녀에게 강한 심리적 통제를 하고자 한다 (Barber & Harmon, 2002; Blatt, 2004).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통해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방해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박탈하는 행동으로서 자녀의 안정적인 자아정체성 정립을 향한 탐색과정을 방해하여 건강한 자기인식과 자신의 과업발달에 대한 지각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Barber & Harmon, 2002) 때문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Luebke, Bump, Fussner, & Rulon, 2014; Nanda, Kotchick, & Grover,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녀에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 & Goossens, 200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Hunter, Barber, & Stolz, 2015), 또래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높였다(Lau, Marsee, Lapré, & Halmos,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국내 연구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자녀들일수록 불안이나 우울, 죄책감, 자기비난, 수치심 등과 같은 심리적 부

적응의 경향을 나타냈고(권오연, 2018; 신희수, 안명희, 2013; 안희정, 2012), 과잉 행동과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나타냈다(김경연, 윤연정, 2010). 임소연(2013)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측면의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김세록(2019)과 김수연(2019)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자기수용과의 관계에서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Career Decision Level) 수준

각 개인이 전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경험을 진로라고 한다(김계현, 2006). 인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최은영, 2010).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 후에 명확하게 진로를 결정짓는 전 단계의 수준으로 진로결정에 관한 확신의 정도를 이른다(김봉환, 1997; 김상진, 김종걸, 2007). 진로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나 졸업 후의 직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개인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뜻한다(이성식, 2007; 이성애, 2006). 진로결정 수준은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선택 등과 관련된 개념인 것이다.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이형국, 2007)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수준의 높낮이는 미래 직업에 관한 준비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강영숙, 이은정, 2006).

진로결정수준은 오랜 연구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확신 있게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로미결정이란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과 환경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함, 선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진로결정이란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잘 파악하고 노동시장과 직업 정보를 다양하게 획득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특정 진로의 경로에 진입한 상태를 진로결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최화영, 2015).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진로발달의 결과물이다(강선영, 1996). 진로미결정 상태는 대학생들의 긴장, 스트레스, 불안 등을 유발시킨다(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진로와 직업선택(김민정, 김봉환, 2007)이라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된 탐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수준이란 선행연구들의 개념을 참고하여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김봉환, 1997)으로 본다. 이는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결정의 특성,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기수용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Macinnis, 2006).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심리적 현상들인 긍정적·부정적 생각과 느낌, 감정, 행동 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을 포함한다. 자기수

용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기수용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영애, 2000). 따라서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형득(1998)은 자기수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자기 수용적인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현상이나 신체적 조건을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 둘째,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 등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진다. 셋째, 자신의 처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직면한다. Rogers(1959)는 자기수용을 기본적인 감각 자료의 왜곡 없이, 자기 자신의 동기·감정·사회적 및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Ellis와 Harper(1997)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지, 유능하고 바르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자기수용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자신을 당당하게 들어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차명숙, 2005). 또한 자기수용은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 볼 수 있게 하고,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끈다(Medinnus, 1965). 이는 자기 수용이 일반적인 심리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수용은 새로운 자신감을 가져다주기도 하며(Rogers, 1942), 자기를 바로 알고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적인 자기 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게 한다(Chandler, 1976).

그러므로 자기수용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특성이며(Alport, 1961), 자기실현을 일구어가는 성숙의 특성이고, 정신건강의 핵심특성이 된다(Ryff, 1989). 여러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와는 부적 관계,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사라형선, 2005; 김지윤, 이동귀, 2012; Chamberlain & Haaga,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기수용을 자기 자신의 내적인 모든 경험과 상태, 그리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태도 및 행동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여 검증된 능력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구해가는 힘이

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자기수용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수용의 정도는 진로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 왔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탐색한 연구들과 각 변인의 개념을 통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연, 2018). 마지막으로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고미나, 박재황, 2008;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와 자기수용의 개념을 통해 그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므로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수용한다는 자기수용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서술을 바탕으로 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수용 수준을 낮추고, 진로결정 수준을 낮출 것임을 알 수 있고,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수용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

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S, K, H, M), 부산(B, S), 대전(D, B), 광주(J, D), 제주(J, K) 지역의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지역의 2개의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 그 외의 4지역에서의 1개의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에서 설문조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설문지역은 확률적 표집 방식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되었고, 각 대학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설문은 각 지역의 지인을 통하여 실시되었는데 조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엔 본 연구자가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11주 동안이었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고 41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 사항은 서울지역 167명(40.6%), 부산 60명(14.6%), 대전 54명(13.1%), 광주 62명(15.1%), 제주 68명(16.5%)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는 대학생이 부모에게 심리적 영역을 통제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부모의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SC-YSR)를 현지원(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이라는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부와 모를 대

상으로 각각 16개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와 모가 자신의 표현을 억압하고,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여 심리적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56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Cronbach's α 값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Cronbach's α)

척도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부의 심리적통제 신뢰도=.946	감정기복	.896
	애정철회	.825
	죄책감유발	.638
	비난	.850
	감정불인정	.757
	자기표현제한	.833
모의 심리적통제 신뢰도=.939	감정기복	.787
	애정철회	.826
	죄책감유발	.661
	비난	.755
	감정불인정	.818
	자기표현제한	.846

나. 진로결정 수준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 (1976)가 개발한 진로미결정검사를 고향자(1993)가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및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진로결정에 관한 2문항과 진로 미결정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반응 양식은 Likert식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미결정 문항인 3번부터 18번까지를 역코딩하여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55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952와 .874였다.

다.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 (2001)가 개발하고 이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하고, 서은경(2011)이 수정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문항 4, 5, 6, 8, 9는 역채점을 하였고, 합산한 총점 범위는 12점에서 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수용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7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ASW Statistics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문항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하위 변인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특성(성별, 학년, 전공, 대학형태, 거주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함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치들이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모형의 검증을 위해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일곱째, 구조방정식에서 나온 경로계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Sobel-test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을 빈도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표 IV-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90명(46.2%), 여자가 221명(53.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 148명(36.1%), 2학년 117명(28.5%), 3학년 75명(18.3%), 4학년 70명(17.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226명(55.0%), 이과계열 185명(45.0%)로 나타났으며, 대학형태는 2년제 198명(48.2%), 4년제 213명(51.8%)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따로 거주 176명(42.8%), 218명(53.0%), 기타 17명(4.1%)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N=411)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0	46.2
	여자	221	53.8
학년	1학년	148	36.1
	2학년	117	28.5
	3학년	75	18.3
	4학년	70	17.1
전공	인문계열	226	55.0
	이과계열	185	45.0
대학형태	2년제	198	48.2
	4년제	213	51.8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176	42.8
	부모와 함께 거주	218	53.0
	기타	17	4.1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형태, 거주형태 등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가.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기술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기술통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관련 특성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통제의 평균은 2.08이었고 표준편차는 0.71이었다. 모의 심리적통제의 평균은 1.98이었고 표준편차는 0.65였다.

표 IV-2 부모의 심리적통제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의 심리적통제	411	.00	3.69	2.08	.71
모의 심리적통제	411	.00	4.00	1.98	.65

2) 일반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변인들 중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전공, 대학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는 여자의 평균이 3.03으로 남자의 평균 2.10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부모는 자녀의 성별 중 남자보다 여자일수록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통념적인 통제방식이 재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공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는 이과계열의 평균이 2.15로 인문계열의 평균 1.9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과계열을 전공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인문계열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 형태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는 2년제의 평균이 2.22로 4년제의 평균 2.08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4년제 대학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다는 것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에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3 일반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

(N=411)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2.10	.57	2.342*	-
	여자	221	3.03	.85		
전공	인문계열	226	1.93	.63	-3.694***	-
	이과계열	185	2.15	.55		
대학형태	2년제	198	2.22	.66	12.844***	-
	4년제	213	2.08	.61		

*p<0.05, *** p<0.001

나.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1) 자기수용의 기술통계

자기수용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자기수용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높은 자기수용의 평균은 4.29였고 표준편차는 1.34이었다. 낮은 자기수용의 평균은 3.42였고 표준편차는 0.99이었다.

표 IV-4 자기수용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높은 자기수용	411	1.57	7.00	4.29	1.34
낮은 자기수용	411	1.20	6.00	3.42	.99

2) 일반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기수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전공, 대학형태, 거주형태였다. 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4.03으로 남자의 평균 3.8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 대학생의 자기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둘째, 전공에서는 인문계열의 평균이 4.30으로 이과계열의 평균 3.48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인문계열 학생의 자기수용도 수준이 자연계열 학생보다 높았다. 셋째, 대학형태에서는 2년제의 평균이 4.01로 4년제의 평균 3.8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형태 중 2년제 학생의 자기 수용도 4년제 학생의 자기수용도보다 높다. 넷째, 거주형태에서는 기타의 평균이 4.44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 4.04,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은 3.75로 나타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기수용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N=411)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3.81	1.14	-2.163*	-
	여자	221	4.03	1.00		
학년	1학년	148	3.94	1.11	1.458	-
	2학년	75	3.82	1.06		
	3학년	117	3.85	1.04		
	4학년	70	4.15	1.07		
전공	인문계열	226	4.30	.94	8.239***	-
	이과계열	185	3.48	1.07		
대학형태	2년제	198	4.01	.75	8.908***	-
	4년제	213	3.82	1.15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거주	176	3.75	1.11	5.572**	부모와따로거 주-부모와함 께거주* 부모와따로거 주-기타*
	부모와 함께거주	218	4.04	1.05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기타	17	4.44	.76		

*p<0.05, ** p<0.01, *** p<0.001

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1) 기술적 통계

진로결정 수준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진로결정 수준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의 평균은 2.80이었고 표준편차는 1.14이었다. 진로미결정의 평균은 2.95였고 표준편차는 0.93였다.

표 IV-6 진로결정수준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	411	1.00	5.00	2.80	1.14
진로미결정	411	1.00	5.00	2.95	.93

2)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 대학형태, 거주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표 IV-7과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3.03으로 남자의 평균 2.8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에서는 1학년의 평균이 3.08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은 2.94, 2학년의 평균은 2.92, 3학년의 평균은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입기인 1학년의 높았던 진로결정 수준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가 졸업이 다가오는 4학년이 되면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선택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셋째, 전공계열에서는 인문계열 학생의 평균이 3.28로 이과계열 학생의 평균 2.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이 이과계열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형태에서는 2년제 학생들의 평균이 2.97로 4년제 학생의 평균 2.82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형태에서는 기타의 평균이 3.42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평균 3.00), 부모와 따로 거주한 경우(평균 2.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가 기타에서 가장 높은 진로결정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7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N=411)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2.83	.98	-2.137*	-
	여자	221	3.03	.85		
학년	1학년	148	3.08	.93	3.055*	1학년-3학년*
	2학년	75	2.92	.89		
	3학년	117	2.74	.92		
	4학년	70	2.94	.87		
전공	인문계열	226	3.28	.73	9.152***	-
	이과계열	185	2.52	.95		
대학형태	2년제	198	2.97	.55	14.024***	2년제-기타* 4년제-기타***
	4년제	213	2.82	.96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176	2.81	.97	4.571*	부모와 따로거주- 기타*
	부모와 함께 거주	218	3.00	.88		
	기타	17	3.42	.69		

*p<0.05, *** p<0.001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

정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변인은 성별, 전공계열, 대학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년은 진로결정 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는 세 개의 모든 변인에서 여학생의 수준이 높았고, 대학형태에서는 2년제 대학의 학생 또한 세 개의 모든 변인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공계열의 경우엔 이과계열 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더 높았고,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은 인문계 학생이 더 높았다. 이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세 개의 주요변수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연구문제 2를 해결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수용의 상관관계는 $r=-.578(p<0.001)$ 로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수용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상관관계는 $r=-.501(p<0.001)$ 로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수준과 자기수용의 상관관계는 $r=.738(p<0.001)$ 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N=411)

구분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부모의 심리적통제	1		
자기수용	-.578***	1	
진로결정수준	-.501***	.738***	1

*** $p<0.001$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가.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는 측정 변인들(부의 심리적통제, 모의 심리적통제, 높은 자기수용, 낮은 자기수용, 진로결정, 진로미결정)이 잠재 변인(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측정모형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는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결정하게 된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3.664$, TLI=.949, CFI=.985, RMSEA=.07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변인의 요인적재량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9 자기수용을 매개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측정모형의 요인 값 (N=411)

측도	하위요인	B	β	S.E	C.R	p
부모의 심리적통제	부의 심리적통제	1.000	.705			
	모의 심리적통제	1.030	.804	.092	11.220	.000
자기수용	높은 자기수용	1.000	.840			
	낮은 자기수용	.629	.712	.041	15.175	.000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1.000	.713			
	진로미결정	1.094	.959	.072	15.253	.000

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모형 비교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함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X^2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IV-10과 표 IV-11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78$, $df=1$, $p<.05$). X^2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여 완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IV-10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

Model	X^2	df	RMSEA	TLI	CFI
부분매개모형	3.664	6	.075	.949	.985
완전매개모형	3.486	7	.072	.953	.984

표 IV-11모형비교를 위한 X^2 차이검증 결과

	ΔX^2	Δdf	결정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178	1	완전매개모형채택

다.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계수는 그림 IV-1과 표 IV-12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beta=-.746$,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자기수용이 진로결정수준($\beta=.855$, $P<.001$)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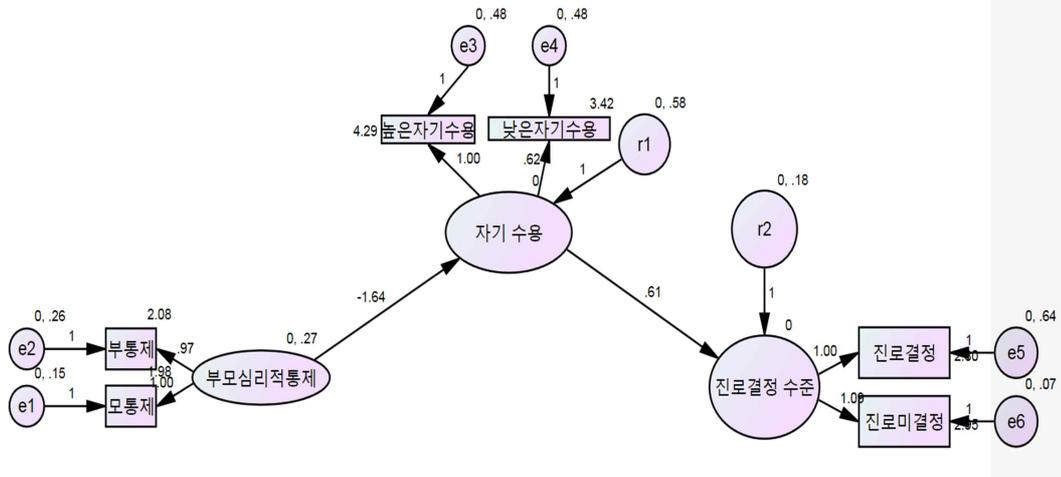


그림 IV-1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

표 IV-12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

변수간 경로	B	β	S.E	C.R	p
부모심리적통제 → 자기수용	-1.639	-.746	.154	-10.614	***
자기수용 → 진로결정수준	.610	.855	.051	12.074	***
부모심리적통제 → 모통제	1.000	.804			
부모심리적통제→부통제	.969	.704	.087	11.164	***
자기수용 → 높은자기수용	1.000	.855			
자기수용 → 낮은 자기수용	.620	.714	.041	15.176	***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1.000	.714			
진로결정수준 → 진로미결정	1.092	.958	.072	15.252	***

*** p<.001

라.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IV-13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경로	a	SEa	b	SEb	z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1.639	.154	.610	.051	-7.951***

*** 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변인들에 따른 주요변인들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요 변인들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확장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지도나 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일반 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전공계열, 학교의 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2년제 학생들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등이 남학생과 4년제 학생들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이과계열 학생들을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문과계열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은 문과계열 학생들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에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변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의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는 권오연(2018)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세 개의 주요변인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수용은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수용이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고 자기수용의 수준은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려면 대학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현장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자기수용,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수준 간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밝혀져 왔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여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던지는 제안점이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으로서의 일반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일반적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과 어떤 역학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과 전공계열, 대학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다음 그 결과를 진로지도나 상담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후기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나 행동 능력을 고양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나 언행을 수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은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이민혁, 2018) 자신을 향한 부모 통제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모의 역동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한 자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나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에게도 자녀와 부모 자신의 보다 적응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통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역학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이라는 요인이 완전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부모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다양한 기초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활용된 본 연구 자료가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이나 편중적인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면담이나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타난 관찰 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와 자기수용 정도만을 검증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함께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몇 개의 특정 지역에 한정됨으로써 초래된 일반화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으려면 전국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해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숙, 이은정 (2006).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5, 1-22.
- 강종호 (2012.12 26). 청년자살 내모는 취업 스트레스.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2667071>
- 고미나 (2012).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고미나, 박재황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7).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진로'가 가장 큰 고민- <https://if-blog.tistory.com/7716>
2017. 12 15. 보도자료.
- 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권오연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윤연정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8(8), 67-76.
- 김나래,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2), 175-191.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성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3), 119-130.

- 김상진, 김종걸 (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53-64.
- 김세록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연 (2019).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애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역할. **미래청소년학회지**, 9(4),31-50.
- 김지윤, 이동귀 (2012).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연구**, 13(3), 1443-1460.
- 김현희 (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은선 (2008). **대학생의 결혼이미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및 낭만적 애착의 관계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 (2017).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경 (2011). **수퍼바이저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의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종임 (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심순구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56.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이민혁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송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애(2006).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 이형국 (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연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18(3), 113-130.
- 정소영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명숙 (2005).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2012).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세현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동반 의존성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0).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남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상희 (2012). **남녀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77-195.
- 현지원 (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 및 또래갈등 지각이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quiline,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Boston, MA: Pearson.

- Barber, B.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eraphs of the fthe SRCD.70*(4), Serial NO. 282.
- Baker, J. A., Dilly, L. J., Aupperlee, J. L., & Patil, S. A. (2003).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Schools as psychologically healthy environm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206-221.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60 -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mberlain, J. M., & Haaga, D. A.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 Chandler, T. A. (1976). A Note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ality-Externality, Self-Acceptance, and Self-Ideal Discrepanci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146.
- Ellis, A., & Harper, R. A. (1997). *A guide to rational living*. North Hollywood, CA: Melvin Powers.
- Hauser, S. T., Powers, S. L., Noam, G. G. Jacobson, A. M., Weiss, B., & Follansbee, D. J. (1984). Familial contexts of Adolescent ego

-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5(1), 195-213.
- Hunter, S. B., Barber, B. K., & Stolz, H. E. (2015). Extending knowledge of parents' role in adolesce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8), 2474-2484.
- Lau, K. S., Marsee, M. A., Lapré, G. E., & Halmos, M. B. (2016). Does parental relational aggression interact with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prediction of youth relational aggression?. *Deviant Behavior*, 37(8), 904-916.
- Luebbe, A. M., Bump, K. A., Fussner, L. M., & Rulon, K. J. (2014).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 to adolescent anxiety through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5), 565-576.
- Macinnes, D. L. (2006).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2), 150.
- Nanda, M. M., Kotchick, B. A., & Grover, R. L. (201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4), 637-645
- Niles, S. G., & Harris-Bowlsbey, J. (2009). *Career development and diverse populations*. NJ: Pearson.
- Osipow, S. H., Carney, G. C., Winer, J. L. Yanico, B., & Koschi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 PAR.*
- Richard, S. (2016). 진로상담[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 역), 서울: 박학사 (원전은 2014년 출간).
- Richard, T. (2013). **부모참여**. (이문희 역 : 원저 : *The Rules of Parenting*. Pearson Education India) 서울: 세종서적.
- Rogers, C. R. (1942). *The use of electrically recorded interviews in improving psychotherapeutic techniques*. *Journal of Orthopsychiatry*.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PP. 184-256). New York:McGraw-Hill.
- Ryff, C.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41*, 413-424.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4), 539-559.
-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 & Goossens, (200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MA.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37*(1), 73-87.

<Abstract>

The Mediated Effect o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Level of Career Decision

Kim Mi-Ky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ed effect of self-acceptance between the corre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ly, we evaluated previous research and developed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are listed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Do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resul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eral variables? Hypothesis 1.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general variables. Research Question 2. How does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s affect each other? Hypothesis 2-1.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will not affect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level. 2-2.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will not affect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2-3.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will have a quantitative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3. How does self-acceptance affect the level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Hypothesis 3-1.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will have a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From July 14th to September 26th, we collected surveys from 435 students, who are currently attending 12 universities in Seoul, Busan, Daejeon, Gwangju, and Jeju, and we reviewed a total of 411 surveys for the final analysis.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PASW Statistic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evaluated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s, according to gender, major in college, and form of college. Male students show a higher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while female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all aspects,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Furthermore, students who study in the science department demonstrate higher level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an those i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who have higher levels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In respect to the form of college, students who are attending 2-year college demonstrate higher level of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variables arises from educational system. The results suggest that respecting students' general variables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affect one another.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ly affects th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self-acceptance has a static effec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e lower th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acceptance,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ird,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has a complete mediated eff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is result implies that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indirectly affects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through self-acceptance, rather than the direct effect. It also validates that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acceptance of college students effectively connects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Following results, this study verifi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level of students' self-acceptance to increase the success of career decisions in college career guidance or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ork as the groundwork of developing counseling programs and career-guidance programs, which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by identifying the patterns of self-acceptance of the counselee resulted fro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In further research, the researcher should consider the general factors of gender and department within the process.

Key words :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levels, mediated effect

부록(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문결과는 위에 제시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이며,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김 미 경

지도교수: 최보영 교수님

e-mail: kmg3311@hanmail.net

★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 ② 여 ()

2. 학 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

3. 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 ② 이과계열 ()

4. 소속 대학의 소재지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5. 소속 대학의 형태 : ① 2년제 () ② 4년제 ()

6. 거주 형태 : ① 부모와 따로 거주 () ② 부모와 함께 거주 ()
 ③ 기타 ()

1.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 중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안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막는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아버지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아버지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아버지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아버지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해 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아버지는 내게 '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걱정할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하시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게 섭섭해 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아버지는 나와 싸우고 나면 내가 아버지의 화를 풀어줄 때까지 나랑 말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아버지는 나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16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 중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안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막는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어머니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어머니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어머니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면서 해 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걱정할 행동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에게 섭섭해 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어머니는 나와 싸우고 나면 내가 어머니의 화를 풀어줄 때까지 나랑 말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어머니는 나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16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진로결정수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_____이(가)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_____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지만 진로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래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V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조금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내 행동이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내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에 실패한다 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